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22일 1차 스프링 캠프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뉴스**



KIA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오른쪽)과 포수 김태군이 22일 1차 스프링 캠프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2연패 도전’ 호랑이 군단, 만반의 준비 시작됐다

美 어바인·日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위즈덤·올리·조상우 등 완전체 소집 미국서는 체력·기술·전술 훈련 소화 일본 이동 이후 본격적인 개막 대비



KBO 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가 새 시즌 준비 모드로 전환했다.

이범호 감독과 손승락 수석 코치를 비롯한 코칭스태프 전원과 투수 광도규, 양현종, 윤영철, 황동하, 포수 김태군, 내야수 박민, 외야수 최형우 등 선발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투수 김기훈, 김대우, 김도현, 김태형, 유승철, 이의리, 이준영, 전상현, 정해영,

최지민, 포수 한승택, 한준수, 내야수 김규성, 김도영, 김선빈, 박찬호, 변우혁, 서건창, 윤도현, 홍종표, 외야수 김석환, 나성범, 박정우, 이우성, 이창진, 최원준 등 후발대는 23일 떠날 예정이다.

두 조로 나눠 미국으로 향하는 KIA 선수단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레이트 파크 베이스볼 컴플렉스를 베이스캠프로 3일 훈련과 1일 휴식 체제의 1차 스프링 캠프를 소화한다.

이어 다음달 18~2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전을 거쳐 다시 출국한 뒤 다음달 21일부터 3월4일까지는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을 베이스캠프로 3~4일 훈련과 1일 휴식 체제의 2차 스프링 캠프를 치른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코칭스태프 22명과 선수 38명 등 총 60명의 선수단이 참

가한다. 투수 18명과 포수 3명, 내야수 10명, 외야수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코칭스태프 20명과 선수 47명 등 총 67명이 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7명이 줄어든 규모다.

스프링 캠프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이 감독이 부담 컸었던 지난 시즌 스프링 캠프와 마무리 훈련을 통해 충분한 선수단 파악을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감독은 초보 감독임에도 팀을 정상에 올려놓으며 지도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인상적인 부분은 KIA가 완전체로 미국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재건술 및 뼈조각 제거술을 받은 이의리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전반기 복귀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다.

또 지명권 및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한

조상우와 새로운 외국인 선수 아담 올리와 패트릭 위즈덤도 처음 팀에 합류하고, 김태형이 신인 중에는 유일하게 가세해 선발 경쟁을 준비한다.

KIA는 1차 스프링 캠프에서 체력과 기술, 전술 위주의 훈련을 실시한 뒤 2차 스프링 캠프에서는 다섯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는 등 본격적인 실전 체제에 돌입한다.

이 감독은 차분하게 새 시즌을 준비하며 공수 양면에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를 지키기 위해 부상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뉴스스에 따르면 이 감독은 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가장 큰 목표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투수는 투구 수를 지키며

차근차근 준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야수는 수비 포지션과 타격 컨디션을 점진적으로 살펴볼 것”고 구상을 밝혔다.

또 “이의리는 3~4월부터 퓨처스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며 투구 수를 차근차근 늘릴 계획이다. 투수 코치가 옆에서 봐주는 것이 낫다”며 “5선발로 시즌을 치를 수 없다. 6~7선발을 만들어야 하기에 김태형이 가진 능력을 파악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타자가 내야수로 바뀌면서 좌익수를 어떤 선수에게 맡기는 것이 나올지, 위즈덤이 1루수로 나설 때 타격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시즌 선수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올해도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FC가 골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2025년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유니폼 ‘Light of Glory Season 2’를 공개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새 아시아 무대 유니폼 공개

‘Light of Glory Season 2’ 내달 3일 온라인 판매 개시

광주FC가 올해 아시아 무대에서 착용할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광주는 골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2025년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유니폼 ‘Light of Glory Season 2’를 22일 공개했다.

새 ACLE 유니폼은 앞서 발표한 K리그 및 코리아컵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빛을 매인 콘셉트로 광주만의 상징과 의미를 표현했다. 유니폼 전면에는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한 승화 전자 기법으로 빛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삽입해 광주의 정체성을 녹여냈다.

유니폼 후면 목 부분에는 ‘Light of

Glory’를 삽입해 지난해 ACLE 리그 스테이지에서 개막전 대승과 동아시아 2위를 기록하는 등 실현됐던 영광의 순간을 올해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유니폼 디자인은 통일성을 강조했다. 필드 플레이어 홈 유니폼은 구단 상징색인 노란색에 세 번째 색상인 남색을 조합했고, 외인색으로 포인트를 줬다. 필드 플레이어 어웨이 유니폼은 흰색과 와인색의 색채 대비로 세련된 느낌을 극대화했다. 또 골키퍼 홈 및 어웨이 유니폼은 각각 회색과 민트색으로 통일했다.

새 ACLE 유니폼은 다음달 3일부터 구단 공식 온라인 스토어와 골스튜디오 온라인 스토어,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를 통해 판매된다. 세부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규빈 기자**

KIA, 연봉 협상 막바지… 광도규 263.6% 인상

45명 중 44명… 김사운 미계약 33명 인상·6명 동결·5명 삭감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스프링 캠프 출발을 앞두고 2025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들과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45명 중 44명이 계약서에 사인했고, 투수 김사운이 유일하게 미계약 신분으로 남았다.

KIA는 2025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 중 44명과 절차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33명이 인상, 6명이 동결, 5명이 삭감된 연봉을 받아들였으며 김사운은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

앞서 1억원에서 400% 인상된 5억원에 사인하며 KBO 리그 4년 차 선수 역대 최다 연봉과 KIA 구단 통산 최고 인상률을 경신한 내야수 김도영을 제외하면 최다 연봉은 내야수 박찬호, 최고 인상률은 투수 광도규가 기록했다.

박찬호는 3억원에서 50% 인상된 4억 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광도규는 3300만원에서 263.6% 오른 1억 2000만원에 도장을 찍으며 프로 3년 차에 역대 연봉 진입을 이뤘다. 광도규의 인상률은 KIA 구단 투수 통산 최고 수치이기도 하다.

광도규를 비롯해 투수 윤영철과 황동하, 포수 한준수도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KIA 연봉 재계약 현황

	2024시즌	2025시즌
정해영	2억원	3억6000만원
광도규	3300만원	1억2000만원
윤영철	9000만원	1억2000만원
황동하	3500만원	1억원
김도현	3500만원	9000만원
한준수	5000만원	1억4000만원
박찬호	3억원	4억5000만원
변우혁	6000만원	8500만원
최원준	2억2000만원	4억원
박정우	3800만원	6500만원

KIA 타이거즈가 2025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 중 44명과 협상을 마친 가운데 투수 광도규가 3300만원에서 263.6% 인상된 1억 2000만원에 도장을 찍으며 KIA 구단 투수 통산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역대 연봉을 받게 됐다. 윤영철은 9000만원에서 33.3% 인상된 1억 2000만원, 황동하는 3500만원에서 185.7% 증가한 1억원, 한준수는 5000만원에서 180% 오른 1억 40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한다.

투수 정해영과 전상현, 김도현, 내야수 변우혁, 외야수 최원준과 박정우 등도 열두 번째 우승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해영은 2억원에서 80% 오른 3억 6000

만원, 전상현은 1억 7000만원에서 76.5% 증가한 3억원, 김도현은 3500만원에서 157.1%가 인상된 9000만원을 받는다.

또 변우혁은 6000만원에서 41.7% 인상된 8500만원, 최원준은 2억 2000만원에서 81.8% 오른 4억원, 박정우는 3800만원에서 71.1% 증가한 6500만원에 사인하며 높은 인상 폭을 보였다.

한규빈 기자